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령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율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율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플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3분 묵상

겨울 묵상

김영문 브루노 신부

살과 뼈를 파고드는
 혹독한 추위는 언젠가 끝나리라
 새벽마다 차고 얼어붙은 골목길을 찾아오는 따스한 햇살
 어둠을 밝히고 서서히 냉랭한 마음을 녹이더라

삶과 혼을 흔드는
 시련의 바람도 언젠가 끝나리라

춥고 고독한 겨울나무에
 홀로 괴로워 울던 새
 흔들리는 빈 가지를 떠나고
 하늘 높이 날더니 비로소 평화롭더라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5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 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12/03/2025 기준
 본당 목표 금액 - \$ 61,028
 현재 기부 금액 - \$ 41,415
 현재 참가 인원 - 92명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대림 제 1주일 (11/30)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43명	52명	202명	95명	39명	431명
성가 안내	입당 성가 : 97 예물 준비 성가 : 216, 332 성체 성가 : 180, 156				파견 성가 : 92	



아프리카 교회의 대표 교부 카르타고의 주교 치프리아노

3세기경 서북 아프리카의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교회는 로마 교회를 능가할 만큼 뛰어난 신학자들을 배출한 지역이었다. 이들은 막 꽂기 시작하던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 고대 로마의 사상적 유산과 로마인들이 기른 논리적 사고방식, 그리고 그들의 자부심을 끌어들여 교회를 풍요롭게 가꾸어 갔다.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치프리아노(?~258)는 교회의 분열에 맞서 일치를 위해 헌신한 순교자로, 아프리카 교회의 대표적 교부로 기억된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순교자 중 한 사람으로 추앙받으며, 교회와 사목, 성서, 동정, 그리고 배교자 문제에 관한 수많은 저술을 남겼다. 비그리스도교 가정에서 태어나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치프리아노는 젊은 시절 문학과 수사학을 배우고, 그리스도교에 입문하기 전까지 수사학 교사로 명성을 얻었다. 세례를 받은 것은 40대 중반인 246년 경이며, 성서와 사제 체칠리아누스의 가르침이 그의 회심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전한다. 회심 후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이 변화는 카르타고 공동체 안에 큰 감동을 일으켰다. 세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49년 초, 치프리아노는 카르타고의 주교로 선출되었다. 그는 이때부터 성서와 테르툴리아누스의 저술을 깊이 탐구하며 신학적 지식을 쌓아 갔다. 테르툴리아누스는 라틴 신학의 기초를 놓은 인물로, 흔히 라틴 신학의 아버지 혹은 삼위일체 정식의 틀을 세운 인물로 평가된다.

치프리아노는 탁월한 지도력과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바로잡고 공동체의 기강을 세워 나갔다. 특히 249년 데키우스(Decius)의 박해를 피해 잠시 피신한 동안에도 서간을 통해 교구를 돌보며 신자들을 격려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박해로 약해지고 흩어진 신자들을 다시 결속시킨 그는 251년 귀환 후, 255년과 256년에 두 차례 시노



드를 열어 “이단자들이 베푼 세례는 무효이며, 이교도들은 재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고, 이는 많은 아프리카 주교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는 “교회와 무관한 사람은 교회의 성사를 집전할 권한이 없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재세례를 요구했으나, 이는 당시 이단자들이 회개할 경우 악수만으로 받아들였던 로마 교회와 큰 논쟁을 일으켰다. 치프리아노와 로마 주교 스테파노는 서간을 통해 논쟁을 벌였고, 서로를 파문할 뻔할 정도로 갈등이 격화되었다. 이 와중에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주교와 사제, 부제들에게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 의식 참여를 강요하는 칙령을 내렸다. 치프리아노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고, 결국 카르타고 근처 쿠루비스로 유배되었다. 이듬해인 258년, 황제는 모든 성직자를 처형하라는 칙령을 발표했고, 치프리아노는 이방 신에게 제물을 바치

라는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참수형을 당해 순교하였다.

치프리아노는 저술가로서도 큰 업적을 남겼다. 그는 서방 교회의 최초의 주교 저술가이자 라틴 문학의 선구자로 불릴 만큼 고상한 문체로 저술 활동을 펼쳤고, “그리스도인 키케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의 대표적 소논문인 『교회일치론』(De catholicae ecclesiae unitate)은 교회와 주교의 관계, 그리고 진정한 교회 일치에 관해 논하며,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이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는 유명한 문장을 남겼다. 이는 분열로 어려움을 겪던 북아프리카 교회 현실 속에서, 그가 교회의 일치를 위해 얼마나 뜨겁게 헌신했는지를 보여 준다. 또한 중앙집권적 교회 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에 반대하고, 북아프리카 교회의 고유성을 옹호했던 그는 “성서의 사람”으로 불릴 만큼 회심 이후 성서와 더불어 살았다. 특히 『세 증언록: 퀴리누스에게』에서는 교리교육과 논쟁을 위해 필요한 성서 본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공하였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그의 65편의 서간은 그의 소논문 못지않게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며, 로마의 수위권, 이단자들의 세례, 유아세례, 카르타고 공동체의 삶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그중 성체 신학을 담은 제63서간은 소논문에 버금갈 만큼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가 공동체에 보낸 마지막 편지들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주교로서 교회를 위해 죽음 조차 증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자의식이 강하게 드러난다. 그는 영웅적이라 할 만큼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걸었고, “진정한 사목자의 면모를 보여 준, 교회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주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칭송받는다. 그의 저술들은 교회 역사 안에서 가장 널리 읽히고 필사되었으며, 번역과 출판이 지속된 작품들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

공지 사항

1 미사 안내

12/8(월) 원죄 없이 임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은 의무 대축일입니다. 이 대축일에 반드시 미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 시간 : 저녁 7:00

2 Special Collection(특별 현금)

12/6(토)-7(주일)은 Catholic Community Services of Western WA : CCS Appeal for the Poor 특별현금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3 시노드 참가 대상자 설명회

- 일시 : 12/21(주일) 오후 1시
- 대상 : 시노드 신청자
- 내용 : 시노드 일정 및 진행에 대한 설명회
- 장소 : 성전
간단한 점심이 제공됩니다. 시노드에 참가 신청하신 모든 교우분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성당 50주년 기념 기금 안내

50주년 기념행사 및 기념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5 본당설립 50주년 목주기도 50만단 봉헌

본당 설립 50주년을 위한 목주기도 50만단 봉헌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7/1/2025 – 8/31/2026
- 대상 : 전신자

6 SHOEBOXES OF JOY

대건회에서는 2025년 성탄 프로젝트로 'Shoeboxes of Joy'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대건회에서 정성껏 담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Donation :** 빈 신발 박스, 각종 용품 (청소, 생활, 위생 용품 등), 보존 식품류
- 장소 : 성당 사무실
- 문의 : 대건회장 우인영 요셉 (404)405-5574

7 구역 음식 봉사

- 일시 : 12/7(주일)
- 음식봉사 : Sammamish 구역
- 메뉴 : 닭곰탕

8 구역의 날

- 일시 : 12/7(주일) 교종 미사 후
각 구역원들은 모두 함께 모여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9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 안내

성당의 쓰레기장 재활용 분리 수거장에는 비닐 쓰레기 봉투를 포함한 모든 비닐류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뚜껑은 반드시 꽉 닫혀 있어야 수거 시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활용 분리 수거함 사용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 그룹 공부 신청

- 내용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등
- 대상 : 성경공부가 필요한 모든 청년, 영어권 포함
- 신청 : 아래의 링크에서 등록 또는 본당 사무실에 문의
- 신청 마감 : 2025년 12월 30일
- 링크 : tinyurl.com/cblmseattle2025



Come join us as we dive into the Word of God!
Schedule to be determined after registration.

 CBM
since 1972



scan to register
tinyurl.com/cblmseattle2025

11 성당 주방 재물 조사 및 사용 안내

- 성당 주방의 재물 조사를 진행합니다.
- * 집에 보관하고 계신 성당의 주방 기구 및 식기들이 있다면 성당으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 * 성당 주방을 사용하실 때에는 성모회장님께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주방 사용 후에는 뒷정리 청소를 깨끗이 해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는 그 즉시 쓰레기장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12 주차장 안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선을 준수하여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당송

보라, 시온 백성아.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제1독서 이사 11,1-10

〈그는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리라.〉

화답송

◎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꽂피게 하소서.

제2독서 로마 15,4-9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 알렐루야

복음 마태 3,1-12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고우 비즈니스 광고

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	CPA, Cho & Assoc. LLC	박영진 부동산	엠마 스킨 케어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억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	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	Pearlshining Photo	퀸텟 융자/부동산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욱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겟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퀸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KCR MEDIA GROUP	24시간 한국방송 &TV	IRA/401(K)	김현숙 부동산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황바로 바오로 CPA	리나 웰니스 클리닉	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	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비만/호르몬 치료 비타민 주사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동서 한의원	New York Life	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	블루밍 치과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롱텀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아틀라스 척추 의료원 14608 Hwy 99 #309 Lynnwood	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	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	이재호 (베드로 치과)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정가네 반찬	황명심 데레사, CPA, CFP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그린 리본 프로젝트
반찬, 케더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희망미디어(Hope Media)	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	핸디 맨	
홈페이지제작/광고/행사/유튜브 촬영&편집 집 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웅진 코웨이 USA	뉴 해남 식당	Banji (Korean Speed Dating)	시애틀 폴락 (덕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목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제27회 한일주교교류모임 미사

[2025년 11월 19일<연중 제33주간 수요일> 히로시마 간온마치 성당]

사랑하는 형제 주교님들, 하느님의 크신 축복 안에서 제27회 한일주교교류모임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음에 깊은 기쁨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이번 만남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저희를 따뜻이 환대하여 주신 히로시마 교구장 시라하마 미쓰루 주교님과 준비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히로시마는 평화의 가치를 몸으로 기억하는 도시입니다.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지만, 그 고통을 품은 채 세상의 평화를 증언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식 8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바로 이곳 히로시마에서 한국과 일본의 주교들이 함께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뜻깊고 감동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루카 19,1-10)에서 우리는 ‘미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한 미나씩을 맡기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고 명합니다. 어떤 종은 열 미나를, 또 어떤 종은 다섯 미나를 남겼지만, 한 종은 그것을 그대로 싸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이 ‘냉혹한 사람이라 두려웠다’고 변명했지만, 결국 그에게 있던 한 미나 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이 비유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은총을 단순히 보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총을 사용하고, 나누며, 더욱 풍성하게 키워 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며 문득 이런 격언이 떠올랐습니다. “배는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배는 정박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배는 거친 파도를 헤치며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 존재합니다. 항구에 머무는 배는 결코 목적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고 한일 양국의 주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 과거 아픔의 상처 속에서도 우리는 멈춰 서 있지 않고, 함께 항해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항구에 머무는 평화가 아니라, 미래의 바다로 나아가는 용기의 평화입니다.



우리 한일 주교들의 교류 모임은 바로 그 복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온 ‘용기 있는 항해’라 할 수 있습니다. 1996년, 양국의 정치적 관계가 여전히 냉랭하던 시절, 한국의 이문희 바오로 대주교님, 강우일 베드로 주교님, 박석희 이냐시오 주교님과 일본의 하마오 후미오 추기경님, 오카다 다케오 대주교님께서 ‘이제는 만나야 한다’는 믿음으로 첫 발걸음을 함께 내딛으셨습니다. 그 만남은 단순하고 의례적인 외교 행사가 아니라, 복음적 용기이자 화해를 향한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모임의 주제는 역사 문제를 넘어 선교, 생명, 환경, 청년 사목 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일본 주교님들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찾아뵙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셨으며, 한국 여러 교구의 사제들은 일본으로 파견되어 사목하며 화해의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한 미나’를 내버려두지 않고, 살아 있는 복음의 결실로 키워 낸 결과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양국 주교님들의 우정은 깊어졌지만, 두 나라 사이에는 여전히 정치적, 사회적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키워온 ‘친교와 일치의 여정’이라는 귀한 미나를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번 모임의 주제처럼 젊은 세대를 위하여 평화의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교류를 이어가는 이유는 단지 과거의 기억에 머물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화해와 평화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그 다리는 형식적인 선언이나 문서로 건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교류, 실천과 나눔을 통해 조금씩 그러나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교적 가치와 평화의 정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평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양국 주교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서로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저희의 교류가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아멘.

2025년 11월 19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 용 훈 주교